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 눈길

무주군, 17개 기업 전담 공무원 연결시켜 규제 등 문제해결 나서

무주군이 올해부터 지역 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의 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운영에 도움을 주고 또 지역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무주농공단지와 무주제2농공단지, 안성농공단지 입주 기업, 그리고 개별 입지 기업 중 전담제를 희망하는 17개 기업에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문제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6급 이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했으며 16일에는 무주읍 최북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관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주군이 지역 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설명회를 16일 개최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제나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은데 행정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전담 공무원들은 앞으로 매칭 기업을 방문하고 전화 면담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할 예정으로 행정 내 관련 부서나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문제해결을 돕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황인홍 군수는 이 자리에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돕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두 손 맞잡고 힘찬 걸음을 내딛어보자"고 말했다.

한편,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설명회 후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도 개최돼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공유됐으며 지원 사업 책자도 배포돼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장년 모여드는 진안 만든다

군, 청년정책 · 일자리 사업 등 27개 지원 사업 추진

진안군은 16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및 청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착을 목표로 직접 일자리 사업, 직업 능력 훈련, 고용서비스 제공, 채용 장려금 지급, 청년창업·주거비 지원 등 27개 사업에 36억원을 투입했다.

주요사업별로는 청·장년정책사업 일환으로 △내일창업아카데미 △청년창업지원 △청년주거비 △청년월세한시지원 △청년참여지원 △공공근로사업 △전북형·신중년취업지원사업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23개사업이 추진된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분야로는 △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등의 4개 사업이 활성화 될 예정이다.

군은 위의 지원 사업 외에도 2024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구인구직 발굴 및 도시 유휴인력을 농업일자리로 제공해 농번기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사업선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진안군 청년미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 청년 아지트리움 및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등 새로운 청년만의 공간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2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청년센터 건립을 필두로 청장년이 모여드는 진안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LH전북지역본부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 신혼부부 주거안정 돕는다

진안군-LH전북지역본부,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섭, 이하 LH)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안읍 일원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각 15호씩 매입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해 2025년 상반기 중에 입주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LH가 민간이 건립한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은 진안군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하고, LH전북지역본부가 임대주택 매입 및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을 마련함은 물론 기존 고향마을과 진안에코르의 등의 입주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적기에 해소하고, 향후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 등 진안을 찾는 이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LH전북지역본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의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령면 환경문제 해결 위한 주민 간담회 실시

진안군은 지난 15일 마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령면 소재지 내 축사와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섬진강상류마령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작년 8월 실시된 마령 주민 면담회에서 요구됐던 건의사항의 추진 경과와 악취를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물론 관련부서장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령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악취유발 사업장에 악취저감을 촉구했으나 사업장의 말뿐인 시설개선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가 상실됐고, 악취로 피해받는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업장 이익만을 추구해왔다며 행정에서의 보다 강경한 대처를 요구했다.

특히 마령면 내 해당 시설들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다양한 문제로 환경부서 뿐만이 아닌 진안군청 내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민원,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간담회로 수렴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진안군청 관련 부서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령면 환경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은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이나 농업경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발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으로 최대 5억 원을 1.5%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선발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홈페이지 또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350-2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이수란 과장은 "장수군의 미래 농업 발전에 기여할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신청하길 바라며, 후계농업인들이 장수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5%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장수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신청자 5,770여건 자동차세 5%를 공제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지속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2년 연속 '우수'

무주군이 전라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1천1백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2년 상반기 평가 '대상', 2023년 상반기 '으뜸상'에 이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무주군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지방세 징수율과 △번호판 영치 실적,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적 등 8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비롯해 공매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행정제재를 유보해 주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호평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10회 연속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선정 쾌거

진안군은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특히 진안군은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연속으로 10회에 걸쳐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평가는 도·군세 징수율, 전년 대비 체납액 징수율 증감률, 부동산 및 차량 공매실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등 8개 항목으로 평가됐으며, 전북도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매 및 공매 처분 등 적극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체납액 일소에 모든 노력을 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